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년 11월 22일(토)

발 신 : 연세대학교 입학처

제 목 : 2009학년도 수시 2-2 모집 논술시험 출제의도 및 문항분석

I. 인문계열

1. 출제 의도

1.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제시문들을 통해 수험생들의 독해력, 논리적 분석력, 표현력, 독창적 사고력을 평가하려 한다.
2.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다루는 의사결정과정,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사회적 갈등해결에 관한 주제와 국어과목에서 배우는 언어와 매체환경을 반영하였다.
3.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 현실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 한다.
4. 제시문들에 나타난 공동주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 한다.
5.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6. 이론적 논의를 응용하여 기초적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일부로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설득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발췌하였다. 설득의 수단을 찾는 능력인 수사학은 중립적인 도구이기에 잘 사용된다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설득의 세 가지 수단으로 연설가의 훌륭한 성품을 통한 설득(ethos), 청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pathos), 연설의 논증을 통한 설득(logos)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제 1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연설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후 한국의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대립이 존재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표결을 하고 그 결과

를 모두 승복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하여 민주정부의 성립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참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도 동시에 밝히고 있다. 본 제시문은 대립의 상황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며, 또 그 결과를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의 일부이다. 『남한산성』은 1636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진격해온 청의 대군을 피해 남한산성에 든 인조와 대신들이 척화(斥和)와 주화(主和) 사이에서 번민한 47일 간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발췌문은 청의 ‘칸’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조선의 임금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국서를 보내온 장면이다. 문서는 상대방에 대한 폄하와 조롱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위협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방식)은 도덕이나 논리가 아니라 힘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위세를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권위적이며, 상대방의 이익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다.

제시문 (라)는 각 매체의 신뢰도와 이용도를 조사한 미국 ARAnet의 자료를 문제의 의도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매체의 신뢰도는 각 매체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이며, 매체의 이용도는 각 매체로부터 뉴스와 정보를 얻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제시문 (라)의 표는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매체가 이용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매체의 높은 이용도 혹은 ‘인기’가 반드시 그 매체로부터의 뉴스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문항분석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해결방식은 ‘설득’이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해결방식은 ‘다수결’이며, 제시문 (다)에 나타난 문제해결방식은 ‘강압’이다. 이 문제는 대립상황의 해결이라는 공통주제의 관점에서 제시문들을 독해하여 각 방식 간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해결 방식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또 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 문제는 대립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인 설득, 다수결, 강압 중 자신이 선택한 것을 타당한 논거를 들어 주장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그 단점을 파악하면서 단점에 대한 보완책을 창의적으로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한다.

[문제 3] 제시문 (라)의 표에서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 매체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이 문제는 설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사용하여 대중 매체에 관한 실증자료를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표를 읽고 고전적인 이론을 응용하여 현대 대중매체를 둘러싼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한다.

II. 자연계열

1. 수학문제

1-1. 출제의도

1. 이 문제는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며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된 평면 위의 원과 직선의 성질, 연산의 개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이 산술적, 기하학적, 그리고 대수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상호 보조적 역할을 하는 체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2. 문제유형을 단순히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훈련만 받은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도록, 그리고 평소에 기본개념을 충실하게 익히고, 주어진 조건을 꼼꼼이 따져서 상황을 이해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운 학생들은 이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1-2. 제시문 및 문항 분석

- * 제시문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 위의 점들 사이의 단순한 연산을 정의하였다.
- * 1-1 원의 성질을 바탕으로 연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간단한 수열을 원의 성질과 연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a)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과 제시문에서 정의된 연산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며, 이러한 간단한 경우를 해결하여 학생들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추측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문제이다.
 - (b) 앞에서 연습한 특정한 경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를 귀납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1-3 제시문에서 정의된 연산의 기하학적 해석과 원과 원을 지나는 직선들이 가지는 기본

적인 성질을 접목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며, 깊은 사고력, 응용력,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2. 물리·지구과학 문제

2-1. 출제의도

1.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I과 지구과학I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으며 물리와 지구과학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정도, 과학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일상의 경험에서 관측되는 자연 현상을 물리학의 기본 원리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천체 현상 및 일상의 경험과 같이 겉보기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연현상들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실제 관측 자료로부터 반복되는 형태(pattern)를 파악하고 이를 물리적 원리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2. 문항 분석

- * 이 문제는 조수현상과 같은 일상의 경험을 ‘중력(重力)’이라는, 자연현상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물리학의 근본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목성의 차등 중력에 의해 혜성이 쪼개진 현상이 겉보기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수현상과 동일한 물리적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수험생들이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 * 또한 이 문제는 학생들이 실측자료로부터 반복되는 형태(pattern)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 해석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3. 화학·생물 문제

3-1. 출제의도

1. 이 문제는 고등학교 화학(1)과 생물(1)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여러 화합물과 생명 현상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2. 암기한 지식의 단편적인 서술 능력 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이해와 종합적 해석을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 이를 위해 고등학교 화학(1)과 생물(1) 교과서와 교양서에서 발췌·수정한 제시문을 대상으로 화학과 생물 영역을 통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3-2. 문항 분석

- * 철 성분의 화학적 성질 및 생체 내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화학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체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 *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생물학의 대명제에 답해보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